

## 합리와 공리

글 · 김형관 대표 용호산업(주)

합리주의(合理主義 : rationalism)는 합리론 혹은 이성주의라고도 한다. 비합리주의와 우연적인 것을 물리치고 도리와 이성(理性)과 논리(論理)가 일체를 다룬다는 주의이다. 즉 감각적이고 신체적인 차원을 넘은 순수한 이성으로서 파악되는 질서를 원리로 하여, 그에 따라 사고(思考)하며 행위(行爲)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넓게 보자면, 통속적인 짐작이나 걸보기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진상을 깊숙이 탐구하려는 그러한 모든 지적 영위(知的營爲)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전형적인 것은 근세 초두의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의 철학인데, 이는 인식론에 있어서의 경험주의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수학적 논증체계를 지식의 존재양식의 모범이라 하여, 절대적으로 확실한 근본명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성적 추론에 의해 제반 진리를 도출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았다.

인식(認識)은 사물을 확실히 알고 그 의의(意義)를 옳게 이해(recognition)하는 것인데, 철학에서는 의식(意識)하여 아는 작용(cognition)의 총칭이다.

그리하여 인식에 의하여 사물의 진(眞)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반성하여 그 기원과 본

질 한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철학을 인식론(認識論 : epistemology)이라 하는데, 일명 지식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는, 감각적 경험은 다만 저차원의 인식에 불과한 것이어서, 오히려 이치에 틀린 인식 곧 오류(paralogism)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이와는 취향이 약간 다르지만, 헤겔이 개념의 변증법적 운동에 의해 구성된 체계도 합리주의적 사고계열의 하나의 극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원래 합리화(合理化 : rationalization)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불안감·열등감·죄악감 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적 메카니즘이다.

이를테면 이솝우화의 《여우와 포도》에서의 〈신포도(sour grapes)〉와 같은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어서 헐뜯는 것, 지기 싫어하기, 오기나 억지 부리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철학에서는, 모든 우연을 물리치고 논리적인 필연성에 의하여 대상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와 연관하여, 공리주의(功利主義 : utilitarianism)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전반(前半)

의 영국을 지배한, 행위의 목적과 선악판단의 표준을 공리에 두는 주의이다. J. 벤담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확립기의 윤리설(倫理說)과 사회사상,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하였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집약되듯, 공리(public welfare) 또는 최대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사회의 각 성원의 행복은 이익의 극대화에 의해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파악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을 주장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일체의 간섭을 배제하는 일종의 야경국가론(夜警國家論)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에 의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의 확립을 지향하는 이른바 <철학적 급진주의>의 운동으로 나타났다. 벤담의 후계자인 J. S. 밀을 거쳐 후에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

그리고 또 도구주의(道具主義)는 인식작용은 유기체의 환경에 대한 적응활동이며, 관념은 그를 위한 도구라고 하는 듀이의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물은 만약 그것을 마시면 갈증이 멎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듯이 관념은 가능적 경험의 예언이며, 행위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장이나 도구와 마찬가지로 관념의 진위(眞僞)는 행위의 지침으로서 쓸모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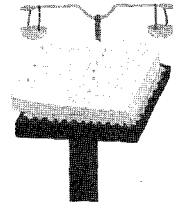
미국의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듀이(John Dewey : 1895 ~ 1952)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입장에 서서 프래그머티즘의 이론을 집대성하였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사회의 개조를 적극적으로 논하는 등 다방면에 업적을 남겼다. 도구주의 또는 일명 기구주의라고 하는 학설은 사상이나 관념은 환경지배의 도구로서의 유용성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사유(思惟)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나 기구라는 학설인데, 일명 개념도구설(instrumentalism)이라고도 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의 결과로 받는 상벌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도구적 학습법(instrumental learning)이라고 한다.

듀이는 버몬트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와 컬럼비아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는데 저서에 <민주주의와 교육> 등이 있다. 교육과제를 지적인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능력의 육성에 두고, 환경과 개체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했다.

이와 유사하게,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19세기 말부터 주로 미국에서 형성된 철학적 입장이었다. 실용주의, 실리주의 혹은 현실주의로 번역된다. 지식은 실용에 소용되는 한에 있어서만 진리라고 하는 주장인데, 일명 실체주의라고도 한다. 지식의 가치를 생활의 실용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것인데, 영국의 경험론이나 공리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다. 여러 설이 있으나 듀이와 제임스(William James)나 실러(F. C. Schiller) 등의 설이 대표적이다.

프라그마(pragma)는 그리스어이며 행위(deed)·실행·실행·활동·사무 등을 의미한다. 이 사상 경향의 기초는 <논(論)보다도 증거>라는 입장의 것이다. 이론의 실천 혹은 실험에 의한 검증을 구하는 실제적인 입장이다. 이 입장에는 또 그 근저에 물리학상의 상대주의, 생물학상의 진화론, 심리학상의 행동주의의 사상



적 요소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 3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결국 과학 지상주의적 입장이며, 아인슈타인(A. Einstein)·다윈(C. Darwin)·제임스(W. James) 등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결부된다. 미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당시의 지도적 사상가인 에머슨(R. E. Emerson)의 초절(超絶)주의 운동에 대결하는 퍼스(C. S. Peirce)의 형이상학 클럽이 생겨났다. 그것은 머지않아 퍼스적 과학지상주의와 에머슨적 신비주의와의 대결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 프래그머티즘의 과학지상주의에 덧 붙여서, 다시금 여기서는 2개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즉 가류주의(可謬主義)와 민주적 개인주의다. 자유주의는 가장 엄밀한 과학적 업적도 오류(誤謬)를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

으로 인정하였다. 즉 독단적이고 배척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가졌으며 또 특정한 과학적 진리의 편중(偏重)도 불허하였다.

그 외에 정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민주적 개인주의의 윤리를 기초로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프래그머티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의 관점에 의하여 프래그머티즘은 결국 데모크라시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래그머티즘은 소크라테스(Sokrates)·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버클리(G. Berkeley)·흠(D. Hume)에도 스며있었던 사상이며, 또 스피노자도 인도하여, 이 입장을 실제구상시킨 원동력은 칸트(I. Kant)의 《순수이성비판(純粹理性批判)》이었다고 분석된다. 그의 철학에서는 경험으로부터 독립된, 사물을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중히 여겼다.

### 제조물책임(PL)법 이란?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2002. 7. 1부터 시행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하는 것

#### < 참고 : 리콜제도, 피해보상제도 및 제조물 책임제도의 차이 >

| 구분 | 리콜제도                              | 피해보상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
| 목적 | 사전 위해예방                           | 사후소비자손해보상                       | 사후보상책임자규명                |
| 대상 | 안전성 결함 제품<br>(전체)                 | 개별결함, 품질하자<br>(안전성, 품질, 계약, 광고) | 안전성결함피해<br>(고의과실, 무과실불문) |
| 수단 | 모든 소비자에 공개수거 및 보상<br>(자진리콜, 강제리콜) | 손해입은 소비자에 개별 보상<br>및 배상         | 개별소비자에 보상, 배상            |
| 방법 | 수리, 교환, 환불                        | 수리, 교환, 환불, 배상, 계약해제,<br>계약이행   | 배상                       |
| 근거 | 품목별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 민법(하자담보책임), 소비자보호법              | 제조물책임법                   |